

제주도 천주교 공소 건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condary Stations of Catholic Church in Jeju

김형남* 신석하**
Kim, Hyung Nam Shin, Suk Ha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xisting and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Secondary Stations of Catholic Church in Jeju.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all the literature and to visit. The time of establishment of the Secondary Stations of Catholic Church in Jeju was mostly 1950's, and that time was the heyday of the Secondary Stations of Catholic Church that was built in Korean. Catholicism was spread throughout Jeju during this time, and in the process, the Secondary Stations of Catholic Church was built. The Secondary Stations of Catholic Church in Jeju are sited mostly in coastal villages, and especially Catholicism was actively spread throughout the west of Jeju and the a large number Secondary Stations of Catholic Church were built in the west of Jeju. The Secondary Stations of Catholic Church were built between the mid-1950's to the mid-1960's.

The plan type is kept as plan shaped of straight shape. When made an enlargement of the interior space and altered, framework of the Secondary Stations of Catholic Church was generally maintained. The head of the side window and the front door have the same design characteristics. When the belfry is located, it is attached to an outer wall of the Secondary Stations of Catholic Church, or is located to the left or the right the front of the Secondary Stations of Catholic Church. The design of belfry found expression in various forms. The buttress are not located in the others but in Young-su Gong-So, and it has not the structural functions but the design functions.

키워드 : 공소, 제주도 서부지역, 평면 형태, 종탑, 버팀벽

Keywords : Secondary Stations of Catholic Church, West of Jeju, Plan Type, Belfry, Buttress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주지역의 근대건축물이나 근대관련 건물 중 천주교 공소건물은 초기에 천주교 전파를 위해 제주지역 각 마을에 지어졌던 건물로서 제주지역에는 현재 10여 개소 정도가 남아 있다. 현대에 이르러 교통의 발달과 도시화 및 이농현상 등으로 공소는 그 역할과 기능이 감소되는 현상을 나타내며 일부 건물들은 공소가 폐지되어 그대로 방치되거나 급속히 퇴화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¹⁾ 이에 따라 현재 제주도 천주교 공소 건물 또한 천주교회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일부는 폐쇄되거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었고, 일부는 철거 후 신축되어 그 원형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다.

기존의 제주도 천주교 성당 및 공소에 관한 연구는 역

사학이나 인문사회학에서 일부 있을 뿐이고 건축분야에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공소 건축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공소 건물이 철거되어 신축되거나, 일부는 방치되어있어 조사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 천주교 건축의 변화 양상(본당으로의 승격 여부, 공소 건물의 유지 및 폐쇄 등)을 파악하고, 현존하는 제주도 천주교 공소 건물의 실태 파악과 더불어 건축적인 특성(위치 및 분포, 건축연대, 평면/입면, 구조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 천주교 공소건물은 초기 제주지역의 천주교 전파와 연계해서 그 건축적인 특성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천주교의 제주 전파와 그 과정 그리고 천주교회 건물의 설립 과정 등을 선이해 할 수 있는 1차적인 자료로서의 의의가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제주도 천주교 공소에 대한 건축적 연구로서 그 범위는 제주교구(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 정희원, 제주국제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조교수(주저자)

** 정희원, 제주국제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 공학박사

1) 김문수, 홍승재, 대전교구 공소의 변천과정과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5호 통권103호, 1997. 5, p127.

한다.

연구의 대상인 공소는 신자들의 집회 장소로 쓰이는 공적인 건물이 있는 경우와 공적인 건물이 없이 사가(개인 주택)에서 신자들의 신앙 집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제주도 천주교 공소는 최초 설립 시에는 사가(초가, 와가, 합석 또는 슬레이트 주택)에서 집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소예절을 위한 공적인 건물이 있는 것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공소에서 본당으로 승격되었으나 과거 공소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연구의 특성 상 포함시켰다.

본 연구는 제주교구 내 천주교 공소의 건축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구조사 방법은 각종 문헌조사와 현지방문조사(실측 및 사진촬영)를 통해 공소의 역사, 규모, 유형 및 제반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실측 조사 시에는 공소 건물의 원형(증축 전)과 변형 후(증축 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부속건물인 사택은 거의 대부분 철거되거나 철거 후 신축되어 원형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연구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2. 제주도의 천주교 수용과 전개

한국 천주교회는 선교사에 의하지 않고 민족 스스로 복음을 찾은 세계교회사에 유례없는 기원을 갖고 있다. 16세기 중엽 예수회에 의한 일본과 중국의 선교가 시도되고 있었는데 17세기 초부터는 서양의 학술서적들이 북경사절단에 의해 조선에 들어와 실학자들에 의해 마테오리치의 「천주실의」 등이 연구되고 있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하나의 학문으로 연구했으나 차츰 신앙으로 받아들여져 천진암에서는 광암 이벽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가 생겼고 이 공동체에서는 1784년 이승훈을 북경에 파견하여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돌아오게 하였고, 이것을 한국 천주교회의 기원으로 삼고 있다.²⁾

제주 지역에 처음 천주교 신앙이 알려진 것은 1801년의 신유박해 때였음이 분명하다. 이 박해로 체포되어 유배형을 받은 신앙의 증인 정난주(마리아)³⁾의 유배지가 곧 제주였기 때문이다. 이후 1845년에는 성 김대건(안드레아) 신부가 인도한 라파엘호가 제주에 표착하여 제주 앞 바다에서 감격스런 미사를 봉헌하였으며, 1858년에는 제주의 첫 신자인 김기량(펠릭스 베드로)에 의해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 또 김기량은 1866년 병인박해 때 순

교함으로써 제주 출신의 첫 순교자가 되었다.⁴⁾

병인박해로 인해 제주의 신앙 공동체가 정착되기도 전에 파괴되고 난 후 제주 지역은 다시 한국 천주교회사의 줄기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1898년경에는 제주 지역 주민들이 육지에 나가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1899년에는 제주 본당이 설립되었다. 제주에 첫발을 내디딘 성직자들은 제주 본당의 정착과 복음 전파에 노력하면서 1900년에는 자본당으로 한농본당을 분리 신설하였다.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날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제주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정착에 노력하던 제주 교회의 희망은 1901년에 일어난 신축교안으로 인해 일시 좌절되었다. 그러나 한국 천주교회가 1세기 동안에 걸친 박해 속에서도 순교자들의 피로 터전을 닦아 온 것처럼 제주 교회 또한 신축교안의 순교자와 희생자의 신앙이 발판이 되어 그 터전을 닦게 되었다. 신앙의 선조들은 이내 교회의 주춧돌을 다시 놓았으며, 그 과정에서 교안으로 인한 고통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⁵⁾

1911년에는 제주도 포교관할이 천주교대구교구로 이관되었고, 1933년에는 제주도 포교관할이 대구교구에서 광주교구로 이관되었다. 이후에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1971년 7월 14일에 포교관할이 광주대구교구에서 분리되어 제주지목구(준교구)로 설정되었고, 마침내 1977년 3월 21일에는 제주지목구가 정식 교구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1 제주본당의 설립

페네 신부와 김원영 신부는 장운선의 주선으로 성당과 사제관으로 사용할 집을 매입하여 1899년 6월 14일에 입주하였다. 당시 제주도민들은 외국인에게 집을 팔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페네 신부와 김원영 신부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집을 구입한 후에 문서를 자신들의 소유로 이전해야만 했다. 그 위치는 제주 대로동(大路洞, 현 제주시 삼도2동 108-11번지의 제주중앙성당 자리)이었고, 매입 대금은 1,550냥이었다. 이 집의 위치와 모습은 페네 신부의 다음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⁶⁾

그 집은 제주읍의 안쪽에 위치해 있는데, (제주읍성의)남문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으며, 큰길가에 있지만 사방이 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위치는 높지는 않지만 제주읍 전체가 같은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집은 세 칸이 마루인 네 칸짜리 사랑방, 기와를 이은 문간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랑채의 맞은편에는 두채의 다른 건물이 있는데, 이들은 각기 세 칸이며, 그것에 딸린 사랑과 부엌이 열린 정사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채에는 들레가 약 12m에서 15m 되는 마당이 있습니다.⁷⁾

2) 천주교제주교구 하귀성당, 2004년 선교·친교 정보지, 2004. 3, p163.

3) 정난주(마리아)의 부친은 정약현과 이씨 부인의 장녀인데, 정약현은 정약종과 정약용의 이복형이었다.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천주교제주교구, 2001, p43.

4)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앞 책, 2001, p31.

5)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앞 책, 2001, p72.

6)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앞 책, 2001, p78~79.

이때 페네 신부가 매입한 집이 바로 제주의 첫 성당이자 사제관으로, 지금의 제주교구청과 제주중앙성당 그리고 신성여자 중·고등학교가 시작된 유서 깊은 곳이다. 당시 그 집 가운데 9칸은 성당으로, 2칸은 사랑으로 사용되었다.⁸⁾ 이후 제주중앙본당(성당)은 1930년에 고딕식 성당을 신축하고 1969년에는 기존 성당을 헐고 성당을 신축하였으며, 2000년에 현재의 대성당을 완공하였다. 한논본당(1900년), 신창본당(1952년), 동문본당(1967년), 광양본당(1970년) 그리고 서문본당(1977년)을 자본당으로 분리하였다.



Fig. 1. 제주본당(1899년)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Fig. 2. 제주본당사제관(1899년)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2.2 한논본당의 설립

김원영 신부는 1900년 6월 12일 정의군 한논(大畵, 현 서귀포시 호근동 194번지, 삼매봉 북쪽에 위치)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에 앞서 김원영 신부는 그 해 초에 인근 주민 300명 정도가 되는 한논 소재의 보리밭 한 뼨과 4칸 집을 매입해 놓았다. 이처럼 김원영 신부가 자신의 거처를 제주에서 한논으로 옮긴 것이 바로 ‘한논본당’의 설립이었으며, 이로써 제주 본당은 첫 번째 자본당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제주도는 새로 복음이 전파되고 제주본당이 설립된지 1년 2개월 만에 2개의 본당 구역으로 분리되었다.⁹⁾

서귀포본당(한논본당)은 제주 교구의 두 번째 본당으로, 정의군 한논(현 서귀포시 호근동, 1900년)에서 정의군 홍로(현 서귀포시 서홍동, 1902년)로 이전되었다가, 서귀면 서귀리(현 서귀포시 송산동, 1937년)으로 다시 이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모슬포본당(1958년), 서귀북자본당(1970년), 성산포본당(1973년), 효돈본당(1988년)을 자본당으로 분리하였다.



Fig. 3. 홍로성당(1935년)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Fig. 4. 홍로성당사제관(1902년)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7) <위텔 문서>. 정리 번호 1899-190, 페네 신부의 1899년 7월 21일서한(제주 100년사 자료집 제4집, p25~27)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앞 책, 2001, p79에서 재인용.
8)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앞 책, 2001, p79.
9)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앞 책, 2001, p81.

3. 제주도 천주교 공소의 설립과 건축적 특성

3.1 제주도 천주교 공소의 설립

<Table 1>의 최초 공소에서 본당으로 승격된 성당을 포함하여 <Table 2>의 공소현황을 살펴보면, 제주도 천주교 공소의 설립 시기는 빠른 경우는 1950년대 이전도 있으나, 대부분이 1950년대이며 일부인 경우는 1970년대 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공소의 전성기(1953~1980년)¹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제주도 지역에서 이 시기에 활발히 천주교가 전파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공소 건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공소 설립년도와 공소의 건축년도는 같은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공소 설립 후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공소건물이 지어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최초에 경제적 또는 제반여건 등에 의하여 일반 사택(가정집)이나 향사 등을 구입 또는 임대하여 신앙의 집합소(공소)로 사용하다가, 차후에 교세가 확장되어 공소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인다. 판포공소인 경우는 공소설립과 동시에 공소건물을 신축하여 집회를 시작하였는데, 제주도 민가의 평면 구성과 가구구조를 하고 있는 특이한 사례이다.(Table 4 참조)

3.2 제주도 천주교 공소의 건축적 특성

(1) 위치 및 분포

제주도 천주교 공소는 거의 대부분 해안마을(해발 0~1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주도 서부지역에 많은 수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Fig. 5 참조) 특히 한경면과 한림읍 지역에 많은 수의 공소(폐쇄 공소 및 본당 승격 공소 포함)가 존재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제주중앙본당과 서귀포본당 설립 이후에 신창본당(1952년), 한림본당(1954년) 그리고 모슬포본당(1958년)이 그 뒤를 이어 설립되면서 제주도 서부지역에서 활발한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¹¹⁾

10) 한국 카톨릭 공소건축의 시대구분과 각 시대별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기 : 천주교 전래와 수용 및 박해시기(1784~1887)

제2기 : 공소건축의 태동기(1887~1910)

제3기 : 공소의 발전기(1910~1953)

제4기 : 공소의 전성기(1953~1980)

제5기 : 전환기의 공소건축 시기(1980년 이후)

김문수, 홍승재, 공소건축의 변천과정과 시대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16권 제2호, 1996. 10. 26, p165~166.

11) 맥그린치(임피제 파트리치오) 신부는 제주도 서부지역에서 천주교 전파와 공소 및 성당 설립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맥그린치 신부는 아일랜드인으로서, 1954년 4월 17일 제주 한림에 정착하여 한림공소를 한림본당으로 승격시켰으며, 신창성당이 본당으로 부활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후에 고산공소(1955), 귀덕공소(1955), 청수공소(1956), 금악공소(1957), 판포공소(1957), 조수공소(1957), 화순공소(1958), 무릉공소(1958), 인향공소(1959), 금능공소(1959), 락지공소(1961) 등의 공소 설립과 경당 신축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성당	위 치	주 요 현 황	본당 승격년도
제주 중앙본당	제주시 삼도 2동	- 1899년: 본당 설립(제주교구의 첫 번째 본당) - 1899년: 제주시 삼도1동 108번지에 성당(부지) 매입 - 1900년: 한눈 본당 분리 - 1912년 이전: 근저 향청 건물을 확보하여 현재의 성당과 교구청 부지 마련 - 1930년: 고딕식 성당 완공 - 1969년: 성당 신축 - 2000년: 현재 성당 완공	1899
서귀포 본당	서귀포시 송산동	- 1900년: 정의군 한눈(서귀포시 호근동)에 본당 설립 (한눈본당)(제주교구의 두 번째 본당) - 1902년: 정의군 홍로(서귀포시 서홍동)로 이전 (홍로본당, 가옥 1채를 매입하여 성당 및 사제관으로 개조) - 1936년: 서귀면 서귀리 586번지에 있는 목조 함석집(20평)과 초가집(15평)을 성당과 사제관으로 개조 - 1937년: 서귀면 서귀리(현, 서귀포시 송산동)로 이전 - 1955년: 성당(80평) 및 강당 겸 유치원 완공 - 1988년: 현재 성당 신축	1900
신창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 1935년: 신창 공소 설립, 양중경 가옥(18평, 현 신창우체국)을 공소집으로 사용 - 1951년: 준본당 설립 - 1952년: 본당 승격 및 성당(40.5평, 석조 함석) 신축 - 1954년: 공소로 격하 - 1957년: 본당 부활 - 1965년: 강당(48.5평) 신축 - 1994년: 성당 신축	1952
한림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 1951년: 공소 설립, 한림 1419번지 김종식의 함석집을 공소집으로 사용 - 1954년: 본당 승격 - 1955년: 성당(102평, 석조 함석지붕) 완공 - 1982년: 금약 본당 분리 - 1999년: 기존 성당 철거(한쪽 종탑은 보존) - 1999년: 성당 신축	1954
모슬포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 1954년: 모슬포 공소 설립(서귀포 성당 소속) 및 공소 경당(60평) 완공 - 1958년: 본당 승격 - 1958년: 성당(120평) 및 지하 창고(20평) 신축(증축 개념) - 1984년: 성당 개/보수 완료 - 1996년: 교육관(2층, 103평) 신축, 공소 유치원 및 교리실 신축 *기존 공소 경당은 '사랑의 집'으로 사용 중	1958
동문	제주시 일도2동	- 1968년: 본당 설립 및 성당(157평) 신축	1968
광양	제주시 이도1동	- 1970년: 본당 설립 - 1971년: 성당(73평) 완공	1970
서귀 복자	서귀포시 중앙동	- 1970년: 서귀포 본당에서 분리 설립 및 성당(성당-60평, 사제관-26.5평, 부속건물-10평) 완공 - 1980년: 성당(177평) 신축 - 1988년: 중문 본당 분리	1970
성산포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 1955년: 공소 설립(고성리) - 1957년: 최초 현주상 집에서 강방상 집 등으로 옮겨 다니며 집회 - 1964년: 공소 경당(46평) 신축 - 1973년: 본당 승격 - 1986년: 성당(87.8평) 신축	1973
서문	제주시 용담1동	- 1977년: 제주 중앙 본당에서 분리 설립 - 1994년: 성당(827평) 신축	1977
신제주	제주시 연동	- 1980년: 공소 설립 - 1981년: 성당(128평) 신축 - 1981년: 본당 승격 - 1988년: 성당(328.11평) 신축	1981
금약	제주시 한림읍 금약리	- 1957년: 공소 설립(한림 본당 소속), 가옥 1채(경당 30평, 벽돌조 슬레이트)를 매입하여 집회 - 1980년: 성당(80평) 완공 - 1981년: 금약 준본당 설립으로 이관, 금약 공소 폐쇄 - 1984년: 이시돌 어린이집(90평) 건립 - 1985년: 본당 승격	1985
중문	서귀포시 중문동	- 1955년: 공소 설립 - 1956년: 공소 경당 마련(중문리 1949-10) - 1957년: 경당 신축(단층 벽돌조 함석지붕) - 1988년: 본당 승격, 사제관 및 교리실(조립식 43평) 신축 - 1989년: 성당(20평) 개조 및 증축 - 1998년: 교리실 및 회합실(52평) 건립	1988
효돈	서귀포시 신효동	- 1957년: 공소 설립(서귀포 본당 소속) - 1968년: 공소 경당 신축 이전(서귀포시 신효동) - 1979년: 공소 경당(15평) 증축 - 1988년: 본당 승격 - 1993년: 성당 신축(성당 145평, 사제관 35평)	1988
고산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 1955년: 공소 설립(한림본당 소속) - 1957년: 공소 경당(60평), 강당(18평) 및 사택(15평) 신축 - 1972년: 경당 내 전기/수도 설치 - 1990년: 본당 승격 - 1990년: 경당(18평)을 사제관으로 개조 - 1990년: 사택(15평)을 교리실로 개조 - 1990년: 성당 지붕(슬레이트) 및 마루바닥 교체공사 실시 - 1992년: 수녀원 및 교육관 완공 - 최근에 성당 신축	1990
등광	제주시 일도2동	- 1995년: 본당 설립 - 1995년: 성당(105평) 및 부속건물(92평) 완공 - 1998년: 성당 및 부속건물 개조 - 1999년: 지하 교육관 및 주차장 완공	1995
남원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 1956년: 공소 설립 - 1959년: 초가집(20평)을 매입하여 공소집으로 사용 - 1972년: 공소 초가 지붕을 기와로 교체 - 1977년: 현 위치로 공소 경당(60평, 석조 슬레이트), 사제관(30평) 신축 이전 - 1997년: 본당 승격 - 2001년: 성당 신축	1997
표선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 1964년: 공소 설립 - 1967년: 공소 경당(20평, 석조 슬레이트) 건립 - 1983년: 공소 경당(현재 성당) 20평 신축 (석조 및 벽돌조 슬레이트) - 1990년: 공소 경당(현재 성당) 증축(12평) - 1994년: 사제관용 사택(40평) 신축	1997
노형	제주시 노형동	- 1997년: 노형 본당 설립 및 성당(142평), 사제관(73평) 등 준공	1997
화북	제주시 화북1동	- 1997년: 본당 설립 및 천막 성당 완공(성당-60평, 사제관/교리실-40평) - 2002년: 성당 신축	1997
하귀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 1962년: 공소 설립(한림 본당 소속) - 1968년: 새 부지(하귀리 1894번지)에 경당(30평, 성당/제의실/관리인 숙소) 완공 - 1989년: 공소 경당 보수공사 완공 - 1993년: 공소 경당 확장공사 및 부속시설 보수공사 실시 - 1997년: 성당 신축(성당 103평, 사제관 51평 등) - 1998년: 본당 승격	1998
조천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 1956년: 조천 공소 설립(제주 중앙 본당 소속) - 1959년: 방앗간을 임대하여 공소로 사용(조천리 2360) - 1971년: 옛 보건소를 공소 건물로 임대 - 1975년: 공소 건립(경당 및 생활관 26평) - 1996년: 공소 신축(경당 81평, 사제관 19평 등) - 1999년: 본당 승격	1999
연동	제주시 연동	- 2001년: 신제주 본당과 노형 본당에서 분리하여 본당 설립 - 2008년: 성당 신축	2001
김녕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 1958년: 공소 설립 - 1964년: 공소 경당(40평), 교리실 겸 사택(20평), 교육관(35.6평) 신축 - 1989년: 교리실/사택 신축, 경당 증/개축 - 1994년: 교육관 신축 - 2004년: 본당 승격(기존 공소 사용)	2004
정난주	제주시 외도동	- 2009년: 노형 본당과 하귀 본당에서 분리하여 본당 설립 - 2009년: 성당 신축	2009
애월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 1959년 8월: 공소 설립 및 경당 신축 (경당 35평-벽돌조 슬레이트, 사제관 15평) 천주교 성당(본당) 현황 (2012. 7. 현재) - 2008년: 성당 신축 (기존 공소 근처의 새로운 대지에 신축) - 2012년 2월: 본당 승격 (기존 공소 건물은 태권도장으로 임대)	2012
김기량	제주시 이도 2동	- 2012년: 본당 설립 - 2012년 7월: 성당 신축 중	2012

- 출처 1)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천주교제주교구, 2001. 12.
2) 천주교 한림본당 50년사, 천주교 한림성당, 2005. 6.
3) 서귀복자성당 30년사, 천주교제주교구 서귀복자성당, 2000. 12.
4) 샘이 깊은 물-신제주본당 25년사, 천주교제주교구 신제주성당, 2006. 12.
5) 광양본당 30년사 편찬위원회, 광양본당 30년사, 천주교제주교구 광양교회, 2000. 12.
6) 제주평협 제10호, 천주교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04. 11.

Table 2. 제주도 천주교 공소 현황(폐쇄 공소 포함) (2012년 현재)

공소	주소	설립 년도	최초공소 완공년도	경당 및 부속건물	폐쇄 년도
용수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549	1949	1963	- 1963년: 대지 688평, 경당 60평(석조 슬레이트) 신축 - 1986년: 경당 증축(15평)	
조수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287	1957	1959	- 1959년: 대지 1,200평, 경당(33평), 사택 13평 - 최근에 신축	
판포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1957	1957	- 1957년: 대지 150평, 경당 11평	1994
한원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한원리) 1278	미상	미상	- 공소 경당 신축 연대 및 면적 미상 - 공소 경당 면적: 15평(실측 자료에 의함)	
청수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077	1956	1957	- 2000년: 현재 경당(94.25평) 신축	
금능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1474-3	1959	1964	- 1964년: 대지 437평, 경당 60평(테스폰 콘크리트) 신축 - 2011년: 철거	1992
수원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892	1903	1903	- 1903년: 대지 170평, 경당 25평(기와집)	1931
귀덕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610-3	1955	1957	- 1957년: 대지 441평, 경당(35평, 함석 석조) 신축, 초가사택 11평	1964
곽지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957-2	1961	1961	- 1961년: 대지 401평, 경당 20평(슬레이트 벽돌) 신축 - 1984년: 경당 증축(30평, 슬레이트 벽돌, 현재 경로당)	1969
세화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62	1973	1992	- 1992년: 대지 1,255평, 경당(40평) 신축	
추자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193-3	1956	1975	- 1975년: 대지 139.7평, 경당(99.25평) 신축	
가나안	서귀포시 상호동 1301-9	1956	1962	- 1962년: 경당(32평, 석조 슬레이트), 부속건물 12평 - 2000년대 초: 현재 공소 신축	
호근	서귀포시 호근동 1764-2	1954	1963	- 1963년: 대지 370평, 경당(14.5평, 석조 슬레이트), 사택 11.5평	1973
예래	서귀포시 예래동	1956	미상	- 공소 경당 신축 연대 및 면적 미상	1973
화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140-2	1958	1961	- 1961년: 경당(24평) 신축 (화순리 1066-3번지) - 1989년: 현재 공소 경당(50평) 신축	
무릉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294	1958	1960	- 1960년: 대지 375평, 경당(23평, 석조 함석) 신축	
인향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2리 인향동	1959	1961	- 1961년: 대지 60평, 경당 10평(초가)	1964
우도	서귀포시 우도면 서광리 1458-5	1947	1993	- 1993년: 대지 167평, 경당(45평) 신축 - 1990년: 사택 신축	

출처)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천주교 제주교구, 2001. 12.

Table 3. 연구대상 건물의 주요현황 및 건축적 특성

공소 (설립년도)	경당 및 부속건물 주요현황	평면 형태 (증축 및 개조)	진입 방향	지붕형태 (재료)	종탑 위치	출입문 위치
용수 (1949)	-1963년: 대지 688평, 경당 60평(석조 슬레이트) 신축 -1986년: 경당 증축(15평) *버팀벽(외벽)	-자형 (정면 길이방향 증축)	단변	박공 (슬레이트)	정면 좌측	정면 우측면(재단 쪽)
판포 (1957)	-1957년: 대지 150평, 경당 11평 신축 -1994년: 폐쇄	-자형 겹집 (살림집으로 일부 개조)	장변	모임 (골함석)	없음	정면
한원 (미상)	-공소 경당 신축 연대 및 면적 미상 -공소 경당 면적: 15평(실측 자료에 의함)	-자형 (없음)	단변	박공 (슬레이트)	없음	정면, 측면(중앙)
금능 (1959)	-1964년: 대지 437평, 경당 60평(테스폰 콘크리트) 신축 -1992년: 폐쇄 (2011년 철거)	-자형 (없음)	단변	아치형 (콘크리트)	정면 좌측	정면 우측면(재단 쪽)
귀덕 (1955)	-1957년: 대지 441평, 경당(35평, 석조 함석) 신축, 초가 사택 11평(차후에 철거됨) -1964년: 폐쇄 (현재 농작물 보관 창고로 사용)	-자형 (없음)	단변	박공 (골함석)	정면 우측	정면
무릉 (1958)	-1960년: 대지 375평, 경당(23평, 석조 함석) 신축 (현재 농작물 보관 창고로 사용)	-자형 (없음)	장변	박공 (슬레이트)	없음	정면 좌측 정면 우측(재단 쪽)
(구)애월 (1959)	-1959년: 경당(35평, 벽돌 슬레이트) 및 사택(17평) 신축 -2012년: 분당 승격	-자형 (없음)	장변	박공 (슬레이트)	재단 뒤	정면 좌측
(구)김녕 (1958)	-1964년: 공소 경당(40평) 및 사택(20평, 차후에 철거됨) 신축 -1989년: 공소 경당 증/개축 -2004년: 분당 승격 (기존 공소 사용)	-자형 (정면 길이방향 증축, 좌측면 증축)	단변	박공 (아스팔트 형골)	확인 불가	정면
(구)모슬포 (1954)	-1954년: 공소 경당(60평) 신축(현재 식당으로 사용 중) -1958년: 분당 승격	-자형 (우측면에 출입문 신설, 마루를 인조석으로 개조)	단변	박공 (골함석)	확인 불가	변경 전(정면) 변경 후(정면, 측면)
(구)중문 (1955)	-1957년: 경당 신축(단층 벽돌조 함석지붕) -1988년: 분당 승격(기존 공소 사용) -1989년: 성당(20평) 개조 및 증축	-자형 (정면, 배면, 좌측면, 우측면 증축)	단변	박공 (골철판)	정면 우측	변경 전(측면) 변경 후(정면)
(구)표선 (1964)	-1967년: 공소 경당(20평, 석조 슬레이트) 신축 -1983년: 공소 경당 20평 신축(석조 및 벽돌조 슬레이트) -1990년: 공소 경당 증축(12평) (2010년 철거)	-자형 (정면 길이방향으로 증축, 우측면 증축)	단변	박공 (슬레이트)	정면 앞쪽	변경 전(정면) 변경 후(정면, 측면)

Table 4. 연구대상 건물의 평면 및 입면

공소 (건축년도)	평면도	현 황 사 진					
용수 공소 (1963)							
		전경	정면 우측	종탑-정면 좌측	비딤벽-정면좌측	실내	사제관(사택)
판포 공소 (1957)							
		전경	정면	정면 좌측면	정면 우측면	배면	제실 출입문
한원 공소 (미상)							
		전경	정면	정면 좌측면	배면	실내-제단 쪽	실내-정면입구 쪽
금능 공소 (1964)							
		전경	정면	배면	정면 및 종탑	측면 창	실내-제단 쪽
귀덕 공소 (1957)							
		전경	정면	정면 좌측면	배면	측면 창	실내-제단 쪽
무릉 공소 (1960)							
		전경	정면	정면 좌측면	정면 우측면	측면 창	실내-제단 쪽
(구)에월 공소 (1959)							
		전경	좌측(좌) 및 정면(우)	배면	종탑 및 우측면	실내-제단 쪽	사제관(사택)
(구)김녕 공소 (1964)							
		전경	정면	정면 우측면	배면	실내-제단 쪽	실내 측면 창
(구)모슬포 공소 (1954)							
		전경	정면	정면 우측면	실내-제단 쪽	측면 창(정면)	측면 문(우측면)
(구)중문 공소 (1957)							
		전경	정면	정면 좌측면	실내-제단 쪽	측면 창(좌측면)	종탑
(구)표선 공소 (1983)							
		전경	정면	우측면 및 배면	실내-제단 쪽	실내 측면 창	사제관(사택)

현재 남아 있는 연구 대상 공소 중 9개가 서부 지역에서 분포되어 있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Table 3 참조) 상대적으로 제주도 동부지역은 읍면 단위로 1개소 정도의 공소가 설립되었으며, 과거 공소가 현재 본당으로 승격되어, 동부지역은 현재 읍면 별로 1개소의 성당(본당)이 있는 정도이다.



Fig. 5. 제주도 천주교 공소 분포도
○(폐쇄 공소), ●(현존 공소), ●(본당 승격 공소)

(2) 건축연대

연구대상 공소 건물의 건축(신축)은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중반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able 3 참조) 이 중에서 판포공소, (구)애월공소 그리고 (구)모슬포공소는 공소 설립년도와 공소 경당 신축 년도가 동일하며, 나머지 공소는 공소설립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공소 경당을 신축하여 마련한 것이다.

공소 경당은 최초에는 일반 민가나 향사 등을 구입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차후에 신도가 늘어나고 교세가 확장되면서 공소 경당의 공간적인 확대의 필요성에 의해 신축되었다.

공소 사택은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의 임시 거처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연구대상 공소 중 사택이 있는 경우는 (구)애월공소(1959년)이며, 문헌상에는 귀덕공소(1957년)와 (구)김녕공소(1964년)에 사택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철거되어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사택은 제주도 민가의 초가집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Table 3 참조)

(3) 평면 및 배치

평면 형태는 모든 공소 건물이 一자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내부 공간 제일 안쪽에 제단(제대)을 설치하고 있다. 공소 중 판포공소는 유일하게 제주도 민가의 내부공간 구성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 마루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제실을 통칸으로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Table 3, 4 참조)

5개의 공소는 증축이나 개조가 거의 없으나, 나머지 6개 공소는 경당 전면이나 측면 그리고 배면으로 공간을 증축 또는 개조하여 고해실 또는 제의 관련 물품 보관이나 준비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내부 공간을 증축

하거나 개조할 때는 공소 경당의 원래 구조(기본 골격)는 유지한 채로 덧붙이거나 개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Table 3, 4 참조)

공소 경당의 평면 면적은 11평에서 60평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면적이 작은 공소는 판포공소로서 건물 전체의 면적이 11평이며, 이 중 제실(예배공간)로 사용된 공간은 약 4평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평면 면적의 대소는 관할 구역(마을)의 수와 신자 수에 의해서 비례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공소 경당 내부로 진입하는 방향(내부 진입 출입문이 위치하는 곳)은 건물 특성 상 단변(박공벽 방향)으로 진입하는 것이 대부분인데(Fig. 6, 7 참조), 판포공소, 무릉공소 그리고 (구)애월공소는 장변 방향으로 진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장변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제단(제대)에서 가장 먼 쪽(반대 쪽)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의 깊이감과 진입 동선의 원활함 그리고 내부공간의 기능적인 활용 등을 동시에 취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Fig. 8 참조)

공소 내부로의 진입 방향과 대지 내 진입방향과의 상관성을 보면, 귀덕공소, 김녕공소, 모슬포공소 그리고 표선공소를 제외한 7개 공소에서는 대지 내부로의 진입방향과 공소 내부로의 진입방향이 다르다(약 90° 정도로 꺾여 있음)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지 내부로 진입 시 공소의 정면을 응시하지 않고 측면을 응시한다는 의미이며, 공소 내부공간으로의 시선 유입을 차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지의 형태와 기능적인(효율적인) 활용성과도 상관성이 있다. 대부분의 공소 대지의 형태가 다소 불완전한 장방형이 일반적이는데, 사택이나 사무소의 배치, 외부공간(마당)의 위치 그리고 주변 텃밭과 기능적인 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다. 귀덕공소, 김녕공소는 공소 내부로의 진입방향과 대지 내부로의 진입방향이 동일하여 공소 내부로 시선이 직접 유입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사택의 위치에 따른 공소 건물 배치의 한계나 대지 활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배치로 생각할 수 있다. 모슬포공소와 표선공소는 진입방향이 일치하기는 하나 진입의 위치가 서로 떨어져 있어서 공소 내부로의 시선 유입이 차단되고 있다.(Table 5 참조)

공소 내부 바닥은 쪽마루(용수, 금능, 귀덕, 무릉)로 되어 있거나, 시멘트 바닥(한원, 애월, 김녕, 모슬포, 중문, 표선)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시멘트 바닥인 경우는 최초 신축 시에는 쪽마루였다가 차후 시멘트 바닥으로 개조한 것인 대부분이다. 판포공소는 제실 바닥이 일반 민가와 같이 종이를 발라 마무리한 점이 다른 공소와 다른 점이다. 제단 부분은 대부분의 공소에서 1단에서 2단 정도 높여 기능적인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Table 5. 연구대상 건물의 배치 특성

공소명	배치 및 진입방향	특성
용수공소		-공소 내부진입 시선차단 -도로와 대지 고저차가 거의 없음 -대지가 막다른도로에 접하여 대지 진입위치 선정 시 유동성 없음
판포공소		-공소 내부진입 시선차단 -진입도로와 대지 고저차가 없음 -대지가 통과도로에 접하여 대지 진입위치 선정 시 유동성 있음
한원공소		-공소 내부진입 시선차단 -진입도로와 대지 고저차가 있음 -대지가 통과도로에 접하였으나 도로와 대지의 특성상 진입위치 유동성 없음
금능공소		-공소 내부진입 시선차단 -대지가 통과도로에 접하였으나 도로와 대지 고저차로 (약 6m) 대지 내 진입위치 선정 시 유동성 없음
귀덕공소		-공소 내부로의 시선유입 -공소 배치의 한계 -대지입구의 협소로 진입위치 선정 시 유동성이 없으며, 도로와 대지 고저차가 없음
무릉공소		-공소 내부진입 시선차단 -대지이용의 효율성 -대지가 통과도로에 접하고, 도로와 대지 고저차가 없음으로 진입위치 선정 시 유동성 있음
(구)에월공소		-공소 내부진입 시선차단 -대지 이용의 효율성 -대지가 통과도로에 접하고, 도로와 대지 고저차가 없음으로 진입위치 선정 시 유동성 있음
(구)김녕공소		-공소 내부로의 시선유입 -대지 이용의 효율성 -대지가 통과도로에 접하고, 도로와 대지 고저차가 없음으로 진입위치 선정 시 유동성 있음
(구)모슬포공소		-공소 내부진입 시선차단 -대지 이용의 효율성 -대지가 통과도로에 접하였으나 도로와 대지 고저차로 (약 5m) 대지 내 진입위치 선정 시 유동성 없음
(구)중문공소		-공소 내부로의 시선 차단 -대지 이용의 효율성 -대지가 통과도로에 접하였으나 도로와 대지 고저차로 (약 5m) 대지 내 진입위치 선정 시 유동성 없음
(구)표선공소		-공소 내부진입 시선차단 -대지가 통과도로에 접하였으나 도로와 대지 고저차로 (약 4m) 대지 내 진입위치 선정 시 유동성 없음

범례 : ①대지 내 진입 ②공소 내부 진입 ③사택 ④사무실



Fig. 6. (구)김녕공소 (출입구 정면 부분 증축)



Fig. 7. (구)중문공소 (출입구 정면 부분 증축)



Fig. 8. (구)에월공소 내부



Fig. 9. (구)표선공소 내부



Fig. 10. 용수공소 제단

(4) 입면

①지붕

지붕은 모든 공소 건물이 박공지붕을 하고 있는데, 판포공소는 유일하게 제주도 민가의 지붕과 같이 모임지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붕 재료는 슬레이트와 골합석이 많으며, 일부 공소는 콘크리트, 골철판, 아스팔트 성글로 나타나고 있다. 지붕 재료는 최초에는 슬레이트와 골합석이었는데, 후에 지붕을 개조하면서 현대적인 재료로 교체한 것이다. 다만, 금능공소(2)는 벽체와 지붕이 일체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서, 최초 건축 당시부터 콘크리트로 건축되었다.

②출입문 및 창

공소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정면 출입문은 공소 건물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 쌍여닫이문(Fig. 11), 두짝 미서기문(Fig. 12) 그리고 외여닫이문(Fig. 13)의 3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출입문의 상부는 측면 창과 동일한 형태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측면 창의 상부를 특별한 디자인이 없이 단순하게 처리하는 경우는 출입문의 상부도 단순하게 처리하고 있으며(Fig. 13, 16), 측면 창의 상부를 아치 형태나 삼각형의 형태로 처리한 경우(Fig. 11, 14)는 출입문의 상부 또한 동일한 디자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금능공소의 창은 바닷가의 작은 돌로 하부를 구성하고 건물 외벽에서 돌출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등 디자인이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세로로 긴 창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경우(금능, 김녕, 모슬포, 중문공소)는 교회건축의 전통적인 디자인적 요소를 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공소들은 일반적인 창호의 형태를 하고 있어서, 창호에서 오는 교회건축의 입면 디자인적인 특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단

12) 표 4의 평면도 중 금능공소는 아래의 문헌에서 발췌하였다.

1999 건축문화의 해 제주지역 추진위원회, 제주의 건축, 1999. 12, p75.

순한 창호의 처리는 입면의 디자인적인 특성보다는 구조적인 안정감과 기능적인 창호의 선택에서 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Fig. 11. (구)모슬포 공소 출입문(정면)



Fig. 12. 한원공소 출입문(정면)



Fig. 13. 무릉공소 출입문(정면)



Fig. 14. 모슬포공소 창



Fig. 15. 중문공소 창



Fig. 16. 무릉공소 창



Fig. 17. 금능공소 창

③종탑

제주도 천주교 공소 건물 중에서 종탑이 존재하고 있는 공소는 6개 공소인데, 이 중에서 표선공소는 공소 건축 당시부터 있었는지 불분명하며, 귀덕공소는 종탑의 상부는 없고 하부만 남아 있는 상태다. 종탑의 위치를 보면, 용수공소(정면 좌측 후면)와 애월공소(제단 외부 벽)는 경당 외벽에 붙여서 건축되어 있으며, 중문공소, 귀덕공소 그리고 금능공소는 경당 전면 좌측 또는 우측에 자리하고 있다. 나머지는 종탑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공소 건축 시 종탑을 세우지 않은 경우이다.(Table 3 참조)

종탑의 형태는 각 공소마다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중문공소와 귀덕공소는 형태적인 특성으로 보아 종탑의 형태가 유사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중문공소는 현재도 종탑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제주석을 2단의 형태로 상부 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로 쌓아 그 위에 종을 놓은 형태이다. 이것은 중문공소와 귀덕공소의 외벽 입면과 종탑이 제주석을 쌓은 형태가 입면적으로 노출되는 디자인적인 유사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공소건물의 수평적 요소에 비해 수직적인 종탑의 특성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것은 제주석을 쌓는 데서 오는 구조적인 한계로 생각할 수 있으며, 종탑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을 위한 형태적인 특성으로도 볼 수 있다.

금능공소의 종탑 형태 및 위치는 구조와 디자인적인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금능공소는 구조적으로 종탑이 건물에 붙여서 건축할 수 없으며, 공소건물의 수평적인 요소와 종탑의 수직적인 요소가 디자인적으로 강조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은 용수공소에서 도 비슷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Fig. 18. 용수공소



Fig. 19. (구)중문공소



Fig. 20. (구)애월공소



Fig. 21. 금능공소

④버팀벽(buttress)

제주도 천주교 공소 건물(연구대상 11개 건물) 중에서 버팀벽은 용수공소에서만 나타나고 있는데, 전통적인 교회건축의 형태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부(지반)에서 상부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형태를 하고 있으며, 하부는 외벽에서 490mm정도 돌출되어 있으며, 정면 폭은 470mm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용수공소는 종탑의 설치와 더불어 버팀벽의 설치로 인해 구조적인 안정감과 의장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건물로서 평가할 수 있다.



Fig. 22. 용수공소 버팀벽 (정면)



Fig. 23. 용수공소 버팀벽 (측면)

(5) 구조

외벽은 제주석(현무암)을 쌓은 형태(Fig. 24, 25)가 대부분이며, (구)애월공소와 (구)중문공소는 벽돌로 외벽을 구성했다. 판포공소는 제주 민가의 구조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목재로 뼈대를 구성한 후 외벽에는 제주석(현무암)으로 덧벽을 쌓은 형태이다. 금능공소는 테스폰콘크리트(삼안식¹³⁾)로 건물을 지었는데, 이 당시 제주도 개척농가에서 이러한 구조로 지은 주택이 지금도 일부 남아 있다.(Table 4 참조) 외벽은 두께 260mm에서 560mm까지 다양하며, 제주석을 네모나게 가공하여 사용하고 있다. 처마길이는 500mm 전후가 대부분이며, 금능공소는 건물의 특성 상 처마가 없는 형태이다. 기단은 3개의 공소 건물에서 확인되고 있다.

원래는 외벽을 제주석 조적조로 구성한 후, 차후에 몰탈마감을 한 경우(용수, 김녕, 표선)나 벽돌조(애월, 중문)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공소에서 보이는 제주석 외

13) 아치형태의 구조로 축조된 독특한 형태의 건축물이며, 이러한 형태와 구조를 삼안식이라고 불렀다. 맥그린치 신부에 의해 개척되었던 한림읍 금악리 이시돌목장을 중심으로 축조되어 주택 혹은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축조는 각재 및 평철을 기본구조로, 삼베나 가마니 등으로 거푸집을 만들어 구조체를 제작하기 때문에 공법이 간단하고 특수 기능공이 필요 없고 목재가 절약되는 장점이 있으나, 균열 발생이 쉽고, 단열이 안 되며 곡면으로 인해 창문 위치가 제한되어 채광과 환기면적이 적은 단점으로 인해 도입되지 못하였다, 제주건축 길라잡이, 제주시, 2011. 7, p24~25.

벽의 육중한 구성은 제주도의 비와 바람이 많은 기후적인 특성과 기능적으로 연관시켜 볼 수 있다. 이것은 입면적으로 볼 때 교회건축의 디자인 특성보다는 제주도 민가 외벽의 입면적인 요소(덧벽)와 유사한 형태적 특성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Table 6. 연구대상 건물의 구조 특성

공소	외벽 재료 (구조)	외벽 두께 (mm)	처마내밀기 (mm)	기단 내밀기 (mm)
용수공소	제주석(조적석)	400	500	
판포공소	목골조+제주석 덧벽 (가구석)	340	500	
한원공소	제주석(조적석)	350	675	100
금능공소	콘크리트(삼안석)	100 (추정)	처마 없음	
귀덕공소	제주석(조적석)	360	555	80~90 (높이: 300)
무릉공소	제주석(조적석)	350	675	100 (높이: 400)
(구)에월공소	벽돌(조적석)	260	500	
(구)김녕공소	제주석(조적석)	560	470	
(구)모슬포공소	제주석(조적석)	460	500	
(구)중문공소	벽돌(조적석)	460	500	
(구)표선공소	제주석+벽돌(조적석)	450	500	



Fig. 24. 귀덕공소 외벽



Fig. 25. 무릉공소 외벽



Fig. 26. 무릉공소 기단

4. 결론

제주도 천주교 공소의 설립 시기는 대부분 1950년대이며, 이 시기에 제주도 지역에서 천주교가 활발히 전파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공소 건축이 이루어졌다. 공소는 대부분 해안마을에 위치하고, 제주도 서부지역에 많은 수의 공소가 분포되어 있다. 공소의 건축은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중반 사이에 이루어졌다.

평면 형태는 일자형을 취하고 있으며, 내부 공간을 증축 또는 개조 시 경당의 기본 골격은 유지한 채로 덧붙이거나 개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당의 면적은 11평에서 60평까지 다양하며, 진입방향은 단변(박공벽 방향)이 대부분이다. 대지 내부로의 진입방향과 공소 내부로의 진입방향이 달라, 공소의 정면을 응시하지 않고 측면을 응시하여 공소 내부공간으로의 시선을 차단하고 있다. 이것은 대지의 형태와 기능적인 활용성과도 상관성이 있다.

공소는 박공지붕을 하고 있으며, 측면 창과 정면 출입문은 동일한 디자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일부 세로로 긴 창 형태를 하고 있는 경우는 교회건축의 전통적인 디자인적 요소를 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공소는 단순한 창호의 처리로 입면의 디자인적인 특성보

다는 구조적인 안정감과 기능적인 창호의 선택을 알 수 있다. 금능과 용수공소의 종탑은 공소의 수평적인 요소와 종탑의 수직적인 요소가 대비되어 디자인적으로 강조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소는 종탑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고려한 구조 및 형태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외벽은 제주석을 네모나게 가공하여 쌓은 형태가 대부분이며, 대부분의 공소에서 보이는 제주석 외벽의 육중한 구성은 제주도의 비와 바람이 많은 기후적인 특성과 기능적으로 연관시켜 볼 수 있다. 이것은 입면적으로 볼 때 교회건축의 디자인 특성보다는 제주도 민가 외벽의 입면적인 요소(덧벽)와 유사한 형태적 특성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볼 때 제주도 공소는 천주교 전파와 그에 따른 공소설립 및 건축의 지역적인 특성(서부지역에 집중)을 보이고 있다. 건축적으로는 단순한 일자형의 내부공간 구성, 제주석으로 외벽을 형성,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창과 문이지만 출입문과 창문 디자인이 형태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입면을 구성하는 등의 지역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것은 현재 제주도 성당 건축의 분포나 형태적인 특성 등에 대한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으며, 향후 현재 제주도 내 산재하고 있는 기독교 건축물(장로교회, 감리교회 등)과의 다양한 연관성을 살필 수 있는 기초자료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자료나 현장조사의 한계 등으로 인한 미진한 부분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하며, 이러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제주도 종교건축의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광양본당 30년사 편찬위원회, 광양본당 30년사, 천주교제주교구 광양교회, 2000.
2. 샘이 깊은 물-신제주본당 25년사, 천주교제주교구 신제주성당, 2006.
3. 서귀복자성당 30년사, 천주교제주교구 서귀복자성당, 2000.
4. 제주건축 길라잡이, 제주도, 2011.
5.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천주교제주교구, 2001.
6. 천주교 한림본당 50년사, 천주교 한림성당, 2005.
7. 1999 건축문화의 해 제주지역 추진위원회, 제주의 건축, 1999.
8. 김문수, 홍승재, 공소건축의 변천과정과 시대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16권 제2호, 1996. 10.
9. 김문수, 홍승재, 대전교구 공소의 변천과정과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5호 통권103호, 1997. 5.
10. 천주교제주교구 하귀성당, 「2004년 선교·친교 정보지」, 2004.
11. 제주평형 제10호, 천주교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04.
12. 하귀성당 전화번호부, 천주교제주교구 하귀성당, 2004.

접수일자 : 2012. 10. 9
 심사일자 : 2012. 10. 20
 게재확정일자 : 2012. 11. 20